

부탁드리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멀리까지 다녀오고, 왜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가서 과일이며 꽃이며 하는 것들을 따다주는 거야? 그린 건 우리 정원에도 넘칠 만큼 있지 않아? 지금도 봐봐, 얼마나 지쳤는지! 완전히 땀에 다 젖었잖아.”

그리고는 작고 하얀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와 뺨에 흐르던 땀을 닦아주었고, 수차례 입을 맞춰주었지.

그런데 그러기 얼마 전부터 비르지니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심란해 하고 있었다네. 아름다운 파란 눈에는 얼룩처럼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고, 안색이 누렇게 뜨는가 싶더니 곧 무기력이 습관이 되어 몸을 짓누르곤 했어. 평온하던 얼굴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입가에서도 미소가 사라졌네. 기쁜 일도 없는데 갑자기 생기발랄한 것처럼 보인다가 나, 슬퍼할 일도 없는데 갑자기 침울해 보이기도 했어. 천진난만하게 즐기던 장난도, 가볍게 해내던 일도 그만두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만남도 피했다네. 비르지니는 거주지 내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어디든 설 수 있는 곳을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휴식을 찾지 못했어. 그러다 가끔씩 풀이 보이면 좋다고 까불거리면서 그쪽으로 다가가다가, 갑자기 거의 다 와서는 난데없는 당혹감에 사로잡히곤 했네. 창백하던 두 뺨이 신흥색으로 물들고, 풀의 시신과 마주칠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 풀이 비르지니에게 이렇게 말했네.